

同窓會 指標

- ・參與
- ・協力
- ・榮光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發行人 崔 主 鎬
編輯人 李 聖 秀
印刷人 韓 鍾 愚

發行所
서울대학교 同窓會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 ~ 5, 717-8536 ~ 7

●銀行지로番号 : 7500875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가을은 손짓하며 山은 부른다



事前에 踏査해본 登山大會의 山行코스 : 오는 18일 거행되는 登山대회엔 3천여 동문가족들의 參加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 해와 같은 登山路에서 별 어려움이 없는 하이킹코스이다. 사진 ①~④ 冠岳山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펼쳐있는 단풍과 신록의 아름다운 景觀. ⑤ 지난 해 先發隊의 登山대열.

冠岳春秋

계절의 리듬을 타고 韓何雲의 한수
가 다시 떠오른다. 『이江山 가을길에
/ 물마시고 가 보시라 / 수정에 서면
슬을 마시는 산뜻한 상쾌이라 / 이강
산 / 도라지 꽃빛 가을하늘 아래 / 전원
은 풍양과 절실로 익고 / 땀내는 거
이 백설처럼 내려지고 / 고추는 태양을
날마다 닦아간다』
한번만 읊어도 천하제일의 이江山가
을 풍정이 물씬거린다. 우물가의 오동
잎새나 들판에서 오솔 오솔 소낙이는
벼이삭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황국단
풍이 무르익은 산야와 코스모스가 모
여 한들대는 가을길이 천국을 날아가
는 정취 또한 새롭다.
한가을의 그 遠近길을 바라보면
남생각이 절로 전해진다. 벗생각이
동반한다. 萬里長空 남행하는 기러
기 무리와 함께 마음의 고향·화
창의 보금자리·우정의 연속선이
인생여정의 가을인양 다가서기도
한다.
10월 상달, 가을 종턱의 이런정
서에 자그마치 올해 우리 동문
들의 親睦登山대회가 오는 18일로
바뀌었다. 개교 41주년·통학의 날
(10월 15일)의 앞뒤를 기리며서
연례행사의 일환으로 이어지는 이
번 대회 또한 연중 최대규모의 대
성황을 기록하리라 믿는다.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인다.
冠岳캠퍼스 정문앞으로부터 農大
부속 樹木園까지 코스는 총길 6
km에 불과하지만, 산길에선 원래
우정이 남다르다. 산길과 하이킹코
스처럼 사람과 사람 벗과 벗가
족과 가족을 보다 친밀하게 한마
음으로 묶는 것은 없다. 험한 곳이면
자연스럽게 서로 손을 잡고, 평탄하고
아는 길이나 계곡이면 對話의 샘물
이 쏘아 올랐을 때, 네댓명의 가림이
에 함께 있으면 내것 내것의 가림이
없고 정상으로 올라서면 탁트이는 가
슴과 함께 靑靑의 뜻과 童心的 세계
가 펼쳐진다.
그 心相은 한없이 밝고 티없이 맑
다. 가을은 부풀고 희망은 설레어도濁
한 권력이나 재화 따위는 아랑곳 하
지 않는다. 가을을 쓰는 어느 한문은 동
심을 가리켜 『靑靑』로 표현해 보자면
하늘의 코발트색 같기도 하고, 反應으
로 표현하자면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 같
이 적혀지면서 갖가지 있는 것 같고,
물건으로 표현해보면 파스텔 톤의
데에 피어나는 미라의 새순같이 나뭇
나뭇하면서 보드라운 것이라 하고

精神이 살고 友情이 살고

아름답고 청초한 이 계절의 열기를
농침이 없이, 14만여 우리 동문 모두
가 가을을 살길 한 코스에 모여, 홀려
간 그 정음의 시절과 해방된 동산의
한 시간대를 회복시켜 보면 어떠할까.
가깝게는 따갑고 끈끈하던 지난여
름의 모진 기억들이 말끔하게 씻겨질
것이다. 푸른재해에 우울했고 私心과邪
心, 과욕과 탐욕이 격동하는 주변世
波의 시달림에서 해방될 수 또한 있
을 것이다. 深奧하게는 大學시절의 꿈과
낭만과 정신이 서로의 人生內面으로交
織되어 우리 서울대인으로서의 活力과
位相은 한층 더 淸鮮해질 것이다. 그
延長線위에서 우리들의 이름, 우리들의
능력과 공헌, 우리들의 역할 또한 스
스로 整理되면서 「精神」이 살아있는 사
람으로서의 자기완성을 다짐하게 될
것이다.
同窓會 본부가 登山대회를 해마
다 열고 친목사업을 늘려가는 뜻
과 主眼點도 바로 우리 동창들의
그런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연
계시키고 발전시키려는 데 있다. 따
라서 그것은 단지 세월속에 물
든 이가들을 만났게 하기
한 것만은 아니다. 의례적인 행
사처럼 하는 데 한정시키려는 것
도 물론 아니다.
올해에도 벌써 많은 동문들로
부터 參與와 協同의 和氣가 채
도하고 있다. 3천여 회원이 물결
처럼 자년대회 보다 더 호들갑하
고 성숙한 友誼와 情義가 모여들 것
으로 확신한다. 또 그런 가운데
내일의 우리들은 영원한 벗·영원
한 동반자로서 紐帶의 폭과 길이
를 훨씬 加乘시킬 수 있을 것이
다.
사실 이번 登山대회 행사의 전
망도 그 러려니와 올해로서 우리
서울대학교 동창회는 분명히 새
아침·새연년의 개척길을 여러모로
기록해가고 있다. 아직 진척은 인차
기록해가고 있다. 10여년의 동창회판이 사
실상 門을 열었다. 會費를 자진납부
하는 동문들의 淸熱은 계속
을 치고고 있다. 會報발간부수는 4
만에서 5만으로 늘었다. 모두가 우
리 동창회원들의 友誼어린 참여와
협력으로 결실한 영광이라 할 것이
다.
이제 그 우정의 영광을 冠岳의
巔마루인양 더 우뚝 높여야 한다. 수
억만년의 태산처럼 그윽함이 없게 하
고 안팎에서 사랑받는 名山으로 다들
아야 할 것이다. 樹木園길 산야의 가
을꽃들과 함께, 길가에 고향처럼 별레
소리, 새소리와 함께, 10·18등산로 걸
음길에선 이런 다짐의 가락으로
모두의 心行이 승화되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最終判決 늦어질도
隣接침범地地訴訟
法官人事異動으로
인접대지의 경계침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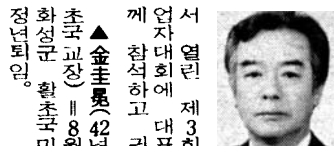
4층엔 共同 專用會議室도 마련

주를 중심으로 축하했다
와대동창회는 이미 지난
5일 會館 4층 404
호(電話 701-1345
6)에 이주를 마쳤다.
한편 이날의 自祝 파티
를 위해서는 와대 女學
師들의 모임인 月桂會회
원들의 음신을 마련하는
등 내빈 접대도 많은 수
고를 아끼지 않았다.

常任理事會 개최
祝祭行事 등 논의

藥大同窓會는 사무
실 入住式에 앞서 會館
5층 3회의실에서 常任
理事會를 열고 司祭의

大學 教授로 재직중.
▲夫人 金貞淑동문..
65년 梨大 英文學科長



(41년) 商
大卒・大韓
商議會長)
9월 7
일 홍콩에
아시아소매
22명과함
。 師大卒・활
31일 경기
교장직에서



大卒・母校
社會大교수
9월 4



57년 卒・大韓音



에(家) 大 58
1서) 卒 年
일 ||
부 10과 小 文



63년 卒・本會
事・特許
(長) 9



68년 大
院卒・清
大藝術大
長・母校

이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全 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職場을 옮기셨거나 職位의 변동을 비롯, 개인의 활동 및 업적에 이르기까지 보다 상세하게 알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 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있으시길 바랍니다. 電話로 통보해 주셔도 됩니다.

電話 : (702) 2233-5

▲李東春(63년)
電報 02-3456789
이민 新社 02-3456789
포항시 호동 606호
전화 05621731578

▲馬香明(63년)
大卒・本會
理事・特許
廳長
02-3456789

▲李東春(63년)
電報 02-3456789
이민 新社 02-3456789
포항시 호동 606호
전화 05621731578

[illegible]

▲崔悅子
(66년 美
大卒・昌原
大教授) 出講。

金 遵 敏〈前 師大正今〉

[illegible]

702-2233-2577

이 가을, 가까운 해
안가 방파제에 대한
간과 경비에 대한
부담없이 손쉽게 바
다와 접할 수 있는
다시와 접할 수 있는
운출장이 되어 줄다.
이 페르 시골의 맑은
한 대다가 그들여새의
화창체가 수면으로 수놓
고 식탁에서는 구경하
기 어려운 각종 고기
들이 술바꼭질한다.
계절인 때문이다.
아니면 가을은 인천
연안부두라도 찾아 친
구들과 어울려 꾸꾸미
구들의 애를 누를
겨울날에 이르러 가을을
친구, 신후배, 남시문
대, 가을을 한 더
말씀의 배낭이 되
제적인 다시, 영리라

時局적생 4백6명 復學

인화하기한대 백81명중 2백57명을 재 이어, 28일 가로 복학을 허가했다. 백6명이 됐다.	학자외의를 영고 시국과 신장한2 생들이 대헌 심정한1 사태 관련으로 허용한 학생은 모두	모교는 지난21일 임사 에는 구조청년동지회 불도로 신청한1 화 이로써 모교에서 하 재인하이 4
--	---	--

(BINET)에도 연결하여 외국 교육연구기관과도 학술정보를 교환케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朴奉植 前총장
교수재임용 결정

大學院長엔 金榮國교수 임명

人文大學長	金完鎮	學生處長	閔丙秀
音大學長	白樂皓	企劃室長	金璟東



◇金鍾云부총장

모교는 지난 1일 일
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
한 河斗鳳 부총장의 후임
으로 金鍾玉 인문대학장
영여연(吳英連)을 임명하
는 등 본부 각부와 大學院
長을 비롯한 2개 단대
화장을 새로 임명했다.

[illegible]

73 ▲▲▲ 1 처 학	64년	서경대학교	조교수 ▲6
85년	동부교수 ▲	70년	동
교수 ▲	71년	모교	文埋
大 主교수 ▲	74년	동부	
교수 ▲	79년	同교수 ▲	
85년	한국문화연구소장		
◇白樂皓음대학장	▲1		
83년	사회과학연구소장		
72년	美國 노스캐		
77년	同敎원主교수		
76년	同敎원主교수		
77년	모교 社會大		
82년	同교수 ▲		
72년	美 國 노스캐		
77년	同敎원主교수		
76년	同敎원主교수		
77년	모교 社會大		
82년	同교수 ▲		

◇李鮮觀(인문대 고고미술사학과) Ⅱ ▲79년 모교
 인문대 고고학과 졸업 ▲
 82년 아리조나주립대학인
 류학과 M·A ▲86년 同
 대학 인류학과 박사학위
 취득

본부 幹部 學·處長 대폭 개편

부 李相煥교수 후임으로 金鍾우
부총장을 비롯, 학생처장
에는 李相煥교수 후임으로
閔丙秀교수(국문학)
로 閔丙秀교수 朴在潤
가 기획실장에 朴在潤
교수 후임으로 金璟東교
수(사회학)가 각각 임
명되었다.

그리고 대학원장을 비
롯한 2개 단과장도 새
로 임명되었는데, 정년

電算所 I B M
 2 년 동안 추진
 된 모교 대형 컴퓨터
 I B M 3 0 9 0 시스템이
 9 월 22 일부터 가동
 되었다. 이번에 가동된 I
 B M 3 0 9 0 은 I B M
 기종으로서 는 최상위
 모델로서 초당 1 천 6 백
 개의 연산을 수행하며
 4 백 7 5 백개

3090가능
구축 연구活性化 기대

[illegible]

電算所
IBM
3090
간능

캠 퍼 스 情 報 網 구 축 연 구 活 性 化 기 대

회장에
邊衡尹
교수
選任

教授협의회
임시총회
열린

[illegible]

대리 高光顯교수(의대)는 인사말에서 “80년이후 화를 다스릴환자들이 오실지 모르겠으나,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관개성에서는 이같이 열렸던 理事會구성의 어서 현행 규정대로 “교수 1백인이내인 단대는2인, 1백인이상 단대는3인”으로 하고 “그외의사

한은「개정안」대로 결의했다.

이어, 회장선출에 있어 각 단체 이사 1명씩을「전원위원회」으로 임명하여 기저 후보를 추천하는방식을 택했는데, 회장으로 선출된 **邊교수** 1人を 추천했고 참석교수들의 동의를 얻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신임 **邊회장**은 인사관계서「교수단」의 의한다는데 의견을 같이고, 현이사를 중신으로 단대사장에 맞추어 2주내에 단체 교수회 열어 새로운 이사를 출하고分會를 구성하로 했다.

또,「화원자유회」를 한 특별위원회」도 성키로 합의했다.

韓委員으로서도 도을을수 냐고 76년부터 장보 공판과장 조보 공판과장 냐고 76년부터 韓委員으로서도	大를 善인, 朴 하서 연구를 대 韓學과장 장보 공판과장 냐고 76년부터 韓委員으로서도	哲硯金(公法學) 硯金(公法學) 硯金(公法學) 硯金(公法學) 硯金(公法學) 硯金(公法學)	學研究所 소장 硯金(公法學) 硯金(公法學) 硯金(公法學) 硯金(公法學) 硯金(公法學)	모교는 지난 1일 硯金(公法學) 硯金(公法學) 硯金(公法學) 硯金(公法學) 硯金(公法學)
---	---	--	---	---

대학과 조교수	83년 로스앤젤레스대학 플로리다대학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66년 모교 동대 대학 조교수	61년 동대원외화학 석사학위 취득	57년 하와이주립대 근초학과 석사학위 취득	54년 하와이주립대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	---------------------------------------	---------------------	-----------------------	----------------------------	---------------------------

韓國文化研究所長 韓永愚 五子

法學研究所長에는 金哲洙교수

모교는 지난 1일 法
연구소 소장 법대金
한편 韓國文化研究所

수(國史學)가 7일자

를 졸업, 서독 뮌헨대
를 졸업, 서독 뮌헨대

화생과장 교무담당학
공법학과장등을 지
터 모교에 재직하며
동인 人文大 교무담당

고, 76년부터 本報編輯장보, 국사학과장등을
위원으로서도 도움을주 임한바 있다.